

통장정리부터 연금수령까지… 찾아가는 어르신 맞춤 점포

은행 지점의 재구성

KB시니어라운지

고령인구 많은 5개 행정구 대상
노인복지센터서 은행업무 제공
보이스피싱 예방 상담 강화도
생체인증 도입해 안전성 제고

1평 남짓한 공간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선다. 이날 보는 은행 업무는 통장 정리, 연금 수령 그리고 주중에 온 문자 상담이다. 보이스 피싱, 문자결제 사기(스미싱)가 늘면서 전화나 문자를 받은 어르신들이 기다렸다가 상담하러 찾아온다.

지난 24일 오후 1시 인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에 문을 연 'KB시니어라운지'를 찾았다. KB시니어라운지는 대형 뱅으로 고령층이 많이 찾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업무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다. KB시니어라운지는 2022년 서울내 고령인구가 많은 5개 행정구(강서·구로·노원·은평·중랑)를 대상으로 운영하다 2024년 인천 5개 행정구(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로 확대했다. 월요일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화요일 미추홀구, 수요일 부평구, 목요일 남동구, 금요일 중구에 위치한 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어서오세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을



지난 11월24일 인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에 문을 연 'KB시니어라운지'에서 한 어르신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나유리 기자

까요?”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물었다. 1평 남짓한 공간에는 상담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고객이 안내 글을 서명할 수 있는 태블릿, 생체 인식 기기 등이 있었다. 임시 장소라기 보다는 맞춤형 은행 같은 느낌이었다.

“계좌 개설 좀 하려구요.”

‘신규 가입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은행직원은 주민등록증을 받고 자

판을 두드렸다. KB시니어라운지는 현금 및 수표 입출금과 통장 정리, 재발행, 연금 수령 등이 가능했다.

은행 직원은 “어르신들은 보통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통장 정리를 자주하러 오신다”면서 “복지센터에 오는 김에 연금도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화나 문자로 온 보이스 피싱, 스미싱 상담도 한다. 어르신의 경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드문 만큼 매주 복지센터에서 보이는 은행 직원에게 묻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경찰서, 검찰, 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하면 바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이스 피싱의 경우 그런 점을 악용해 자주 이용한다고 금융 교육을 통해 안내하고 있고, 의심되는 문자 등을 물어오면 답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니어라운지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은 생체 인증 본인확인 서비스다. 은행 업무를 보기위해선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잊고 가져오지 않거나 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손바닥 정맥 인증(생체 인증)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며 “대포통장 피해나 스미싱 피해도 막을 수 있어 예방을 위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시니어라운지는 지점이 어떤 건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객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점을 재구성해 1대 1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KB시니어라운지는 금융의 중심에서 벗어날 뻔한 고객의 금융 접근권을 회복시키고 있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

보험 브리핑

신한라이프

유연근무·반반차 등 일·생활 균형 ‘우수’

신한라이프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와 주요 정부 부처 및 경제 단체 주최 ‘2025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유연근무제, PC-OFF 제도, 반반차 제도, 연차 자기결재 시스템 등 직원 편의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전체 직원의 과반이 활용해 근무 자율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 생활에 맞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교보생명-서울경찰청

실종예방 사전등록 등 취약층 보호지원 맞손

교보생명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사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달 5일 서울경찰청과 실종예방 사전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어린이보호·치매보험가입자는 실종예방지문 등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매월 1.0~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 확산을 위해 재무설계사(FP) 조직 중심의 현장 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다음달 전국 전속 FP에게 안내 전단지 8만 부를 배포해 고객 방문 및 상담 과정에서 아동·장애인·치매 환자가정에 사전등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등록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KB라이프-강남세움복지관

강남구 독거 어르신에 방한용품 꾸러미 전달

KB라이프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27일 강남세움복지관과 함께 강남구 독거 어르신을 위한 ‘겨울 맞이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KB 라이프 희망드림 봉사단 2기’의 세 번째 대면 행사로 KB라이프 임직원 9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방한용품 꾸러미 제작 ▲창문 단열재 부착 ▲가정 방문을 통한 꾸러미 전달 및 정서적 지원 등으로 활동을 구성했다. 임직원들은 2인 1조로 인근 임대아파트 가구를 방문해 직접 준비한 방한용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창문 단열재를 부착했다. /김주형 기자

양종희 “도전·문제 해결자로 AI와 함께 미래 준비”

(KB금융그룹 회장)

제7회 KB테크포럼 플레이 위드 AI 최신 AI 기술·에이전트 경험 공유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새로운 기술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더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기회를 준다”며 “우리 개발자들도 ‘도전적인 자세’와 ‘문제 해결자’로서 AI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1월28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한관에서 열린 ‘제7회 KB테크포럼 플레이 위드(PLAY with) AI’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 회장과 이창권 KB금융지주 디지털·IT부문을 비롯해 전 계열사 대표가 참석했다.

KB테크포럼은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그룹 최대 기술 공유 행사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한 이날 포럼에는 KB국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제7회 KB테크포럼 플레이 위드(PLAY with) AI 행사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KB금융그룹

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전 계열사의 테크·AI·디지털 부문 임직원과 마이크로소프트·AWS·LG CNS 등 주요 파트너사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현업 적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의 슬로건은 ‘AI와 함께 실행하고(Play) 학습하며(Learn) 발전하

는(Advance) 당신(You)’이었다. 최신 AI 기술과 AI 에이전트를 직접 경험하고 활용해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운영됐다.

KB금융에서는 ‘KB 에이전트 시연’, ‘바이트코딩 체험 존’ 등 부스를 운영하고, 주요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 AWS, LG CNS에서는 ‘AI코딩’ 등 부

스 운영을 통해 각 계열사 직원들이 최신 기술을 직접 느끼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직원이 지식 공유와 소통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현장 라이브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양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개발자세션 I·II(AI 에이전트, 테크·AI)와 ▲파트너세션으로 진행됐다.

KB금융은 개발자세션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행 경험을 나누는 데 주력했다. ▲PB 에이전트 개발 사례 ▲AI 기반 인프라 자동화 도구 개발 사례 ▲생성형 AI 기반 보험서류 OCR 솔루션 개발 사례 등 최신 기술의 실무 적용 사례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파트너세션에서는 KB금융과 함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략 ▲AI 기반 개발 기술의 미래 등을 각 계열사 개발자들과 공유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2월 첫째 주 전국 14곳서 1만여 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7799가구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의

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8단지’,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 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서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한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1개동, 총 1912가구 중 전용면적 46~84㎡, 95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 경기 이천시 증포동 ‘이천증포5지구칸타빌에듀파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대상웰라움순

창’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유승건설·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501가구 규모다. 단지 앞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인근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안상미 기자